

이 종 길 대한양계협회 이사



# 경기 좋을 때 만나서 연구하고 실천하자

**언** 제부터 우리 국민들은 비싼 외제 수입품이라고 하면 쪽을 못쓰게 되었는지?

미군 PX를 통해 흘러나오는 닭고기는 물이 줄줄 흘러도 외제면 좋고 유명외제브랜드만 붙으면 수입가격의 몇십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형편이요, 정가가 십만원이면 쳐다보지도 않지만 오십만원으로 가격을 올려놓으면 불티나게 팔리고 한끼에 몇만원씩하는 음식점은 앉을 자리가 없고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지리산 정상까지도 쓰레기더미로 악취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란다.

이런 것이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의 부산물이라면 차라리 후진국에서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너무 촌스런 탓일까? 우리보다 몇 배나 잘사는 나라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벌써 살만하다고 일은 하기 싫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사고방식으로도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런지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우리 양계업계도 국제화시대를 맞아 해결해야 될 난제가 산재해 있는데 시세만 회복이 되면 회원

들 얼굴보기가 어려워지는게 현실이고 보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수입개방의 거대한 A급태풍을 잠재우고 축산업계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런지? 상수도 오염문제로 축산폐수가 도마위에 올라있고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으며 이상구 신드롬으로 축산업계가 몇개월씩 휘청거려야 되고 시세가 보름만 좋으면 수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판에 우리 양계인들은 누굴 믿고 불구경만 하고 있는지? 매일 발행되는 월간양계 뒷면에 실리는 양계산물 소비홍보비 협찬 금명단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호경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업계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눈앞에 닥친 수입개방을 앞두고 우리는 내수기반을 다지고 확충하기 위하여 소비홍보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될뿐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계열화사업을 정착시키고 한포에 육천원하는 사료값을 오천원대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며 사백원하는 병아리가격을 이백원대로 낮추어서 소비자에게는 연중 안정된 가격으로 값싸고 질좋은 다양한 양계산물을 공급할 수 있

는 길이야말로 우리 양계업계가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불일진대 왜 지금까지도 먼산만 바라보고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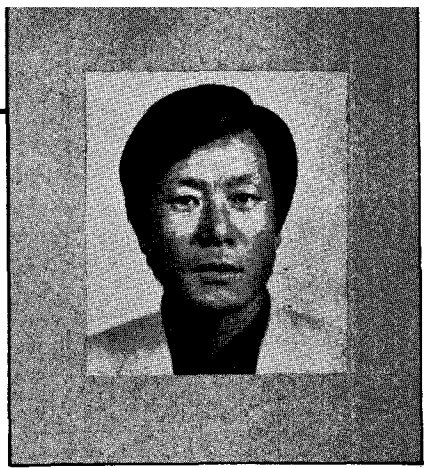
이제부터는 일년에 몇번씩 관광여행가는 기회를 한번쯤 줄이고 고스톱치는 시간을 쪼개어서 십시일반으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빠른 시일내에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단합하면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는 노도와 같은 큰 힘이 될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자.

이제는 제반여건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갈길에 순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이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면 양계업계를 빨리 떠나는데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여겨지며 연관업계에서도 거대한 외국자본이 상륙하기 전에 서로 만나서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이 길만이 우리가 외국자본의 시너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천직의식을 가지고 안정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순 오 죽전부회장 대표·본회 육계부화분과위원장

# 값싼 병아리 공급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하자



**호** 황과불황이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됨에 따라 양계인들 사이에는 양계산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산업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최근 부화업이 예상외의 호황이 장기화되면서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루만 하고 그만 두지는 분명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양계업도 구태의연한 우물안 개구리식의 산업에서 벗어나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정착되어야겠다.

눈앞에 닭고기 수입이 현실화로 나타날 때도 멀지 않았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익이 생기면 수입되는 것이 경제원리이고 또한 닭고기생산의 주축이 되는 사료원료의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되는 우리의 처지로서는 경쟁력이 극히 미약하다. 이런 현실에서 호황을 맞고 있는 이시점의 부화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양계업 즉 육계업을 안정시키고 수입을 막을 수

“  
**값싼 병아리의  
공급을 위해 부화업계에서는  
생산비선에서 절반 이상의  
등락이 거듭되는  
병아리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겠다.**”

있는 방과제는 과연 없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없이 값싼 산물을 만들어 내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값싼 사료구매, 값싼 병아리입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시설현대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세계상혜택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중 부화업계 측면에서 바로 값싼 병아리의 공급이 우리업을 존속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값싼 병아리의 공급을 위해 부화업계에서는 생산비선에서

절반이상의 등락이 거듭되는 병아리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겠다. 다음은 적정생산을 유도함에 따라 산물시세가 안정되고 이를 위해 적정 원종계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계약에 의한 병아리 생산과 입추가 되면서 정확한 병아리생산수수의 파악조사로 스스로 입추 및 생산조절이 되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물량부족으로 인한 수입의 기회를 주는 경우는 없어야 됨은 국내의 가격폭등으로 소비자의 여론에 의해 값싼 닭고기가 들어옴에 따라 국내의 양계산업의 기둥이 흔들리는 경우를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내비율의 산업을 차지하더라도 양돈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조직의 활성화로 전양계인의 단합된 힘의 응집력으로 방과제 역할을 하고 개방화시대를 대비한 조기대책을 세워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김 경 렬 천인양계협동조합장



# 업종별로 협동조합을 구성, 조직적으로 움직이자

**우** 리 경제가 농업 위주에서 산업사회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동안 양계업 역시 과거 등우리 양계에서 케이지 양계로 발전해 왔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농산물의 풍흉에 따라 국민생활이 좌우되었으나, 요즘은 수출입이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또한 선진 자본국의 농수산물 수입 개방 압력으로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양계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완전개방이 코앞에 닿은 지금 양계산업 지탱을 위해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자각해야 한다.

양계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는 하나 양계인 대다수가 순수한 농민으로서 닭만 잘 보살피면서 성실하게 일해왔지 주변의 흐름이나 전망에 대하여는 너무나 무지했다. 요즘은 기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기존 축사로는 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세태의 흐름을 인식못한 탓으로 수입개방에 당황하고 있다.

시설 보완이 급선무이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환경개선이다. 우리 양계인도 공단식으로 한곳에 모여서 집단농장 형식으로 벗어날 수 있고, 생산물의 공동판매와 사료구입의 집단화로 수송비의 경감 등 여러모로 혜택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날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만큼 발전한 것은 축산업자들끼리 친목회 형식이라도 모임체가 있어 정보 교환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더 왕성하고 조직적인 정보 교환과 경제활동을 펴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

지난날은 우리 생산물의 유통을 상인에 의존하여 왔지만 전국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중간 마진을 줄이고, 생산물의 신선도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리라 본다. 아무리 수입란이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도 원거리 수송

관계로 신선도와 품질이 국내 생산물을 따라올 수는 없다.

이런 일을 주도할 양계협동조합 창립의 이점을 알고 있으나 지방에서 아직 창립치 못하는 것은 창립 준비시 수속절차의 복잡성과 창립후 운영이 문제가 되어 아직 서두르지 못하고 있으니 당국자는 기존 설립 조합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계업자도 사료구입시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도 내고 있는바 아직 양계업자한테 직접적 지원이 없는 것은 참으로 그릇된 일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오래부전부터 요구하여 왔으나 실행되지 못했고, 외국 축산물이 몰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쟁에 이기려면 사료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시급하다.

밖에서 이기려면 안에서 충실해야 한다. 축산인,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나간다면 안될 일이 있겠는가, 축산인은 생산

물의 신선도와 품질면에 주력하는 동시에 이를 주도할 조합을 창립해 조직적 사업을 전개하고 정부 또한 면세 조치등 지원을

하며, 국민 역시 민족경제를 위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자기 요구의 목청만 높이고 있다.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 주고 서로 양보하여 일치단결로 밀려 오는 수입 상품의 공포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

최준구 본회 채란분과위원장  
전국계우회연합회장

## 유통의 최종단계를 생산자가 주도해야 한다

**‘생**산자는 생산에만 주력하던 시대’는 지났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수입개방 압력의 농도가 점차 짙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및 자구책 마련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 연구하고 있다.

값싼 생산 원자재의 구입, 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기계화, 자동화의 실현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 양계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려는 양계인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충족될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연중 불안정한 가격, 불결한 난좌에 의한 유통, 상인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상품거래에서 파생되는 모순 등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양계산물의 소비에 장애요소로 등장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농장이나 집단농장에서는 고유상표로 위생적인 계란을, 깨끗한 난좌에 포장, 유통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선란’, ‘위생란’.

말만 들어도 소비자들이 완전식품인 계란을 안심하고 구입,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

이처럼 원가절감을 꾀해 양계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계란유통을 어떻게 주도하여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관심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밀려오는 수입 양계산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선함’과 ‘위생적임’을 내세워 양계인 스스로가 방관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과감히 실천에 옮길 수 없다면 우선 각 지역별로 뜻을 같이하는 양계인들의 의견을 수렴, G.P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계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농장과 생산자를 직접 연계시켜 ‘신선란을 여러분의 식탁에 빠르게 공급한다’는 작은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자는 저렴한 생산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될 때 소비자는 양계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 소비는 꾸준히 신장될 것이며 영양가가 높은 식품의 하나로서 늘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오르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리라 믿어본다.